

#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본 것은?

**'8천미터의 희망과 고독'**

엄홍길 지음  
이레 / 9천8백원

**히말라야 8천m급 14좌란**

히말라야는 해발 8000미터가 넘는 봉우리 14개를 비롯해 7000미터급 산 360여 개를 거느리고 있다. 이중 각각 네팔(네팔)중가, 마칼루, 로체, 에베레스트, 초오유, 마나슬루, 안나푸르나, 다울라기리, 중국의 국경(시사팡마)과 파키스탄(가셔브롬1, 가셔브롬2, 브로드피크, K2, 낭가파르바트) 지역에서 하늘로 솟아 있는 자성에서 가장 높은 이 14개의 봉우리들을 가리켜 '히말라야 8000미터 14좌'라고 한다.

**'끝없는 도전'**

박영석 지음  
김영사 / 9천9백원

비슷한 시기에 히말라야의 8천m급 14개 봉우리를 각각 완등한 세계적인 불자 산악인 엄홍길씨(43)와 박영석씨(40)씨가 험난했던 도전의 기록을 나란히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8000미터의 희망과 고독>과 <산악인 박영석 대장의 끝없는 도전>이다. 다루는 범위와 내용은 다르지만 두 책 모두 주 무대는 히말라야다. 14개 산 정상에 완등한 때는 엄홍길이 2000년, 박영석이 2001년으로 엄씨가 1년 앞선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게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실을 저미는 흑한과 싸우면서, 발목이 부러지면서도, 또 동료들을 설산에 묻으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산에 오르는 산사나이들이라는 점에서 경이감을 느끼게 할 뿐이다. 두 책 모두 등반대 구성에서부터 설산에서의 사투와 정상에서의 감동적인 순간까지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다. 엄씨는 지난 2000년 7월 K2에 오르며 아시아 최초로 히말라야 8천m급 14개 봉우리를 모두 등정했다. 그러나 엄씨는 지난 85년부터 16년 동안 14번의 실패를 경험했고 정상에

## 설산에서의 사투와 등반 뒷얘기 정상정복의 감동 진솔하게 그려

걸려 오른쪽 발가락 일부를 잘라내기도 했다. 산에 젊음을 바친 동료 대원과 셰르파들의 희생도 따랐다. 때문에 엄씨는 1998년 안나푸르나 등정시 7700미터 지점에서 추락했던 사고를 가장 잊혀지지 않은 등반 기억으로 꼽는다. 추락하는 셰르파를 구하려다가 같이 추락했는데 줄이 엄씨의 몸에 걸리면서 엄씨만 천신만고 끝에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이때 엄씨는 "동료대원의 죽음을 겪어 아만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인가"라며 절규한다. 그러면서 "오르코자 하는 열망을 버리는 만큼 정상에 오르는 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대자연과 마주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경건하고 또 경건한 마음을 지녀야 할 뿐"이라고 털어놓는다. 아시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무산소 등정한

박씨의 등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 "다 울라기를 오를 때였다.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데, 갑자기 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눈덮인 히든 크레바스였던 것이다.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내 몸은 풀을 알 수 없는 크레바스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이 사고 때 박씨는 배낭끈이 얼음 기둥에 걸려 생명을 건졌지만, 7명의 대원들은 히말라야에 묻고 와야 했다. 이렇게 갖은 고생을 다해 올라간 정상에서의 느낌에 대해 박씨는 "정상에서 본 세상은 아득하고 낯설었다. 인간이 자랑스럽게 쌓아올린 온갖 문명이 그곳에서는 작고 사소한 점으로만 존재했다"고 털어놓는다. 박영석씨는 11월 16일 남극점 원정길에 다시 나섰다. 박씨가 이번 원정에서 남극점을 밟게 되면 세계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 달성에서 북극점만 남겨두게 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게으름의 즐거움'**

피에르 쌍소 외 지음  
함유선 옮김  
호미 / 7천원



## 천천히 느릿하게 있는 그대로 ...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물음은 적어도 때때로 게으르게 살아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쫓기듯 앞만 보면서 뛰어나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화두 자체가 빠져 있기 일췌다. <게으름의 즐거움>은 단지 느리고 한갓지게 사는 것이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데 그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예찬이라고 해도 좋을만한 언사로 게으름과, 느림, 멈춤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삶의 질을 얼마나 끌어 올리는지 이리저리 풀어헤쳐 보인다. 여기에는 작가나 철학자의 맛깔스럽고 울림이 남는 글이 있는가 하면, 정원 설계사나 물리학자의 색다른 또 뜻깊은 글도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부는 '게으름 누리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1999년 프랑스 TV '카날 플뤼스'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게으름의 전자파들'과 '왜 일을 하나'에 근거를 두고 있다. 2부는 '시간, 멈추어 버린'이란 부제로 작가와 학자, 기자로 있는 여섯 사람이 쓴 에세이를 다발로 묶어 놓은 것이다. 글 사이사이에 들어 있는 사진들은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만든다. 피에르 쌍소는 이 책에서 특유의 사유방식에 따라 게으르게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천천히 늘어 놓는다. 게으름은 어디 아픈 것처럼 짙게 하기 싫어하는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천천히, 느리게, 있는 그대로' 삶을 누리려는 몸가짐이자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책장을 넘기다 보면 '생존경쟁을 위해 억지로 무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언제나 있을 거' 되문게 만든다. 김주일 기자

**전문가 서평**

**'굶주리는 세계'**  
프랜시스 라메 외 지음 / 허남혁 옮김  
창작과비평사 / 1만2천원

## 기아 해결방안 개인 도덕성서 찾아

아주 오래된 농담 하나. 한국의 초대 대통령 부인 프랜세스가 여사가 어느 날, 쌀이 없어 밥을 해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빵을 먹으면 될 텐데." 서구인으로서의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즉 상식에 입각한 말이다. 그런데 이 상식이라는 것이 호두껍질처럼 단단해서진 진심마저 가둘 정도가 되면 '신화'가 된다. '식량에 관한 열두 가지 신화'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굶주림의 원인이라고 세상에 유포된 상식이 사실은 허구임을 밝히는 책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말하는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가 아니라, '굶주림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믿는 왜곡된 상식을 말한다. 그렇다고 이 책이 선동적이거나 거칠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다. 오히려 문학적으로 보일 만큼 단정 한 문장에, 쉽고 재미있고 친철하다. 이 책의 지은이들은 "굶주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굶주림을 종식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그러한 원인들이 굶주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정하는 일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관점 또한 흐리게 한다는 것이 지은이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그것을 살피기 전에 신화를 논박하는 지은이들의 사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찾아보자. '인권!' 바로 그것이다. 지은이들은 육체적인 척도로 굶주림을 바라보지 말 것을 제안한다. 보편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굶주림은 '고통'이고 '슬픔'이며, '굶음'이자 '공포'라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부자들의 수요에만 반응하는 시장의 경제제 독단을 넘어서, 송고한 가치에 봉사하는 책임 있는 소유를 하자는 것이다. 이 책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논거를 찾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해결책은 개인의 도덕적 각성에서 찾는다. 민주주의의 확대를 정치인, 시장의 문제 해결을 기업이 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자본의 속성을 꿰뚫어 보는 그들의 시각은 학자라기보다는 영성을 깨우치는 구도자에 가까운 듯하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 문제, 즉

## '식량에 관한 12가지 신화' 통해 다각 분석

누구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를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서두의 발언이나, "수많은 미국인들이 물질적 소유가 삶을 만족시키는 열쇠라는 생각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깨닫고 있다"는 말미의 진술은, 극단적으로 물욕에 얽매는 스님이나 신부를 연상하게 할 정도이다. 바로 이 점이 이 책의 진정한 매력일지도 모르겠다. 자본의 폭력성에 저항하여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개인이 늘지 않고는 결코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임으로. 이 책의 지은이는 푸드 퍼스트(Food First)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식량개발정책연구소'의 연구원들로, 빈곤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나 반세계화운동의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각 장의 끝에 옮긴이가 붙인 해설은 북한 식량 문제 등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은 2003년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신자유주의와 무역자유화에 반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경희씨에 대한 헌사로 바쳐졌다. ■윤재학 / 본지 논설위원

<굶주리는 세계>는 '푸드 퍼스트'라는 범칭으로 알려진 '식량개발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으로 굶주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열두 가지 신화를 통해 분석한다.

#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제품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차량용

가정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 사용처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지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물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 사용후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물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향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액격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년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 세조원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입금계좌: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김도현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터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